

14th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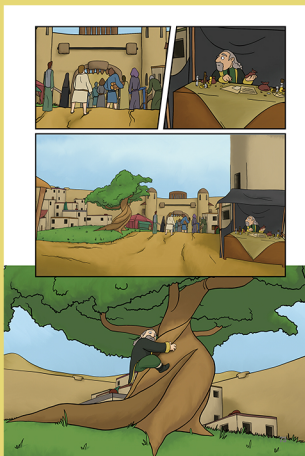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Zacchaeus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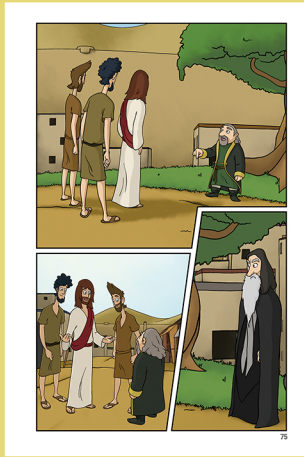
- 14th Story -

- 나레이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여리고로 들어가던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 맹인 왜 이리 소란인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누가 있는 거죠?
- 무리들 나사렛 예수요. 그 예수가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고.
- 맹인 예수? 그 예수님? 예수 선생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 나레이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곁을 따라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 맹인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 예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 맹인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예수님 자,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 나레이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맹인은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맹인은 너무나 놀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인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 삭개오는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 무리들 예수님! 예수님! 저기,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 삭개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와우! 나도 만나고 싶은데, 음... 저 저기요. 저기요. 좀 지나갈 수 있을까요?





- 나레이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무리를 지나쳐 갈 수 없었어요.
- 삭개오 잠시만요, 저 좀 지나가야 하는데. 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난 너무 작아.. 어떻게 해야하지?..
- 나레이션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서있는 뽕나무를 발견했어요.
- 삭개오 좋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 아!
- 나레이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될까봐 좌절했어요. 그리고 빨리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을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 삭개오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어
- 나레이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무 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 예수님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 삭개오 어? 어..어...네? 네!!!
- 나레이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더욱 놀랐어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재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드렸어요.
-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수근대기 시작했어요.
- 무리의 사람 1 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 무리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잖아! 그는 죄인이야!
- 무리의 사람 2 예수님이 사람 잘못 봤구만 ...
- 무리의 사람 1 아니면 알고도 상관을 안하셨거나..
- 나레이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수근대서 슬펐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갔을 때 말했어요.



삭개오

주님, 주님께서 왜 저의 집에 오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것이 있다면 그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무리들

헛.. 와!

예수님

삭개오야, 네가 아주 자랑스럽구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단다.